

인천에 대형 녹색산업 집적단지 조성

남동산업공단에 350억원 투입 ... 정보·바이오·나노기술 관련기업 집적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에 IT(정보기술), BT(바이오기술), NT(나노기술) 등 녹색성장산업 관련기업들이 입주하는 집적화센터가 조성된다.

인천시는 12월 중으로 남동공단 3만㎡의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12월17일 발표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인지역본부는 350억원을 투입해 2012년까지 지하 1층, 지상 4층, 연건축면적 4만㎡의 집적화센터를 건설할 계획으로 친환경 첨단기업 100여사가 입주할 예정이다.

국내 최대 중소기업 전용산업단지인 남동공단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와 가깝고 제2경인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 제3경인고속도로(2010년 개통 예정) 등과 연결돼 입지 여건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인천시는 앞으로 남동공단을 첨단산업 중심의 집적화센터와 아파트형 공장 등으로 정비하고 공원과 주차장을 확충하는 등 환경 개선과 구조 고도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12/18>